

知韓. 코마츠 아키오 회장, 앞으로 한.일관계 해법은 ?

知韓.親韓派로 잘 알려진, 일본 (주)코마츠전기산업의 코마츠 아키오 회장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코마츠 회장은 일본인이지만,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고, 명성황후 민비를 살해한 과거의 일본행위에 대해서도 깊은 뉘우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이다.

특히 그는 지난해 시마네현 마츠에 市에서 독도와 관련, '아주 작은 섬의 이야기'라는 좌담회를 개최 화제를 모았고, 최근에는일본에 '세계의 전쟁과 평화 박물관'을 건립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될 공생(生)의 문화 심벌로 독도.다케시마에 한국 전쟁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들의 각각의 민족옷을 입은 여성들을 이미지한 '지구공생.인연맺기 동상'의 설치도 제안 했다

최근에는 (주)한스월드(회장:전재천)가 추진중인 경기 화성지구의 '한.중.일 문학.역사.철학 테마기념관/(일명 문.사.철 센터)건립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본지 국제부 이명근 기자는 코마츠 아키오 회장과의 인터뷰를 위해, 오는 26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편집국 국제부